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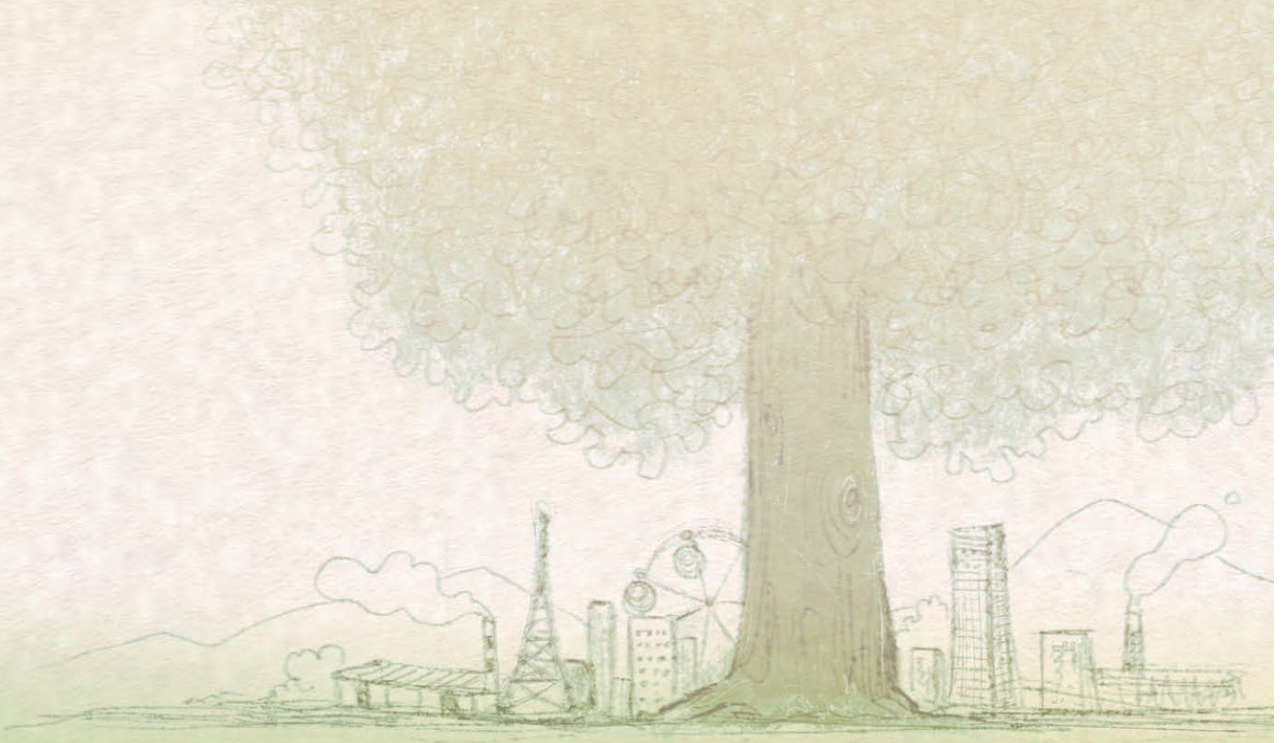
생활안전 길라잡이 
Life Safety Guide

안전노트



이 책자는 /

- 각종 재난으로부터 여러분들의 안전을 지키는데 도움을 드리고자 제작되었습니다.
- 자연재난, 사회재난, 안전관리 등 재난 및 상황 안전을 위한 행동요령을 수록하고 있습니다.
- 이 책의 내용은 기본적으로 국민안전처 재난대비 국민행동요령을 참고하여 작성하였습니다.
- 이 책의 내용은 모든 재난상황에 적용될 수 있는 것은 아니므로, 이를 응용하여 적절히 대비하셔야 합니다.
- 이 책은 필요할 때마다 쉽게 찾아볼 수 있도록 가까운 곳에 두고 수시로 읽어 보셔야 도움이 됩니다.
- 이 책의 내용은 다양한 재난상황에 대한 기본적인 권장사항으로, 특정 사고에 관한 법적 책임을 판단하는 기준이 될 수 없습니다.
- 이 책의 내용에 관해 문의, 건의사항 등이 있으시면 강원도청 홈페이지를 방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차

| 자연재난



· 태풍	8
· 호우	12
· 한파	14
· 설해	16
· 폭염	18

| 사회재난



· 산불	22
· 유도선사고	24
· 감염병	26
· 가족질병	28

| 안전관리



· 어린이 놀이안전	32
· 승강기	34
· 가스사고	36
· 여름철 물놀이 사고	38
· 도로교통사고	40
· 자살예방	42
· 지반침하(함몰)	44
· 심폐소생술	48







생활안전 길라잡이

자연재난

태풍 / 호우

한파 / 설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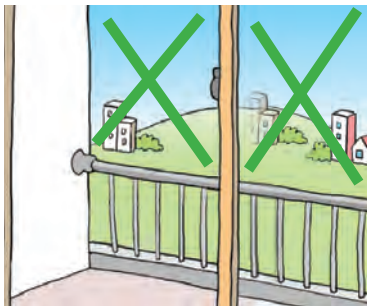
폭염

안전노트



■ 태풍 대비 행동요령

▶ 바람에 날아갈 위험이 있는 지붕, 간판, 창문, 출입문 또는 마당이나 외부에 있는 헛 가구, 놀이기구, 자전거 등은 단단히 고정해 둡니다.



▶ 유리창은 깨지지 않도록 X자로 테이프를 붙입니다.

▶ 넓은 창호는 강풍으로 휘어지거나 파손될 위험이 있으니 미리 교체하거나 창문을 창틀에 단단하게 고정시켜 틈이 생기지 않도록 보강해야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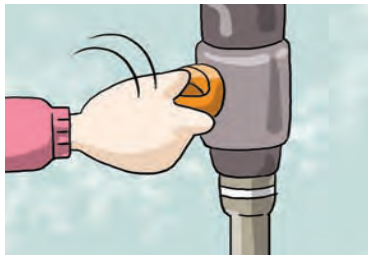
▶ 저지대 · 상습 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 응급 약품, 손전등, 식수, 비상식량 등 생필품은 미리 준비합니다.



태풍



■ 태풍 발생시 행동요령

-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하지 말고, 노후주택의 주민은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 대피할 때는 수도, 가스, 전기를 반드시 차단해야 합니다.
- ▶ 건물의 간판이나 위험시설물 주변으로 걸어가거나 가까이 가지 않도록 합니다.
- ▶ 공사장 근처는 위험하오니 가까이 가지 맙시다.
- ▶ 비닐하우스 등의 농업시설물을 미리 점검합니다.
- ▶ 해안도로 운전은 피해야 합니다.
- ▶ 바닷가 근처나 저지대 주민은 대피 준비를 합니다.



■ 태풍 발생 후 행동요령

▶ 파손된 상하수도나 도로가 있다면 시·군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합니다.



▶ 비상 식수가 떨어졌더라도 아무 물이나 마시지 말고 물은 꼭 끓여 드십시오.



▶ 침수된 집안은 가스가 차 있을 수 있으니 환기시킨 후 들어가고 전기, 가스, 수도시설은 함부로 손대지 말고 전문 업체에 연락해 안전을 확인 후 사용합니다.



▶ 제방이 붕괴될 수 있으니 제방 근처에 있지 마시고, 감전의 위험이 있으니 바닥에 떨어진 전선 근처에 가지 않습니다.



▶ 피해를 입은 사유시설 등을 보수·복구할 때는 반드시 사진을 찍어 두십시오.



호우

홍수 및 침수 등의 피해를 발생
총강수량이 많은 것을 호우라고 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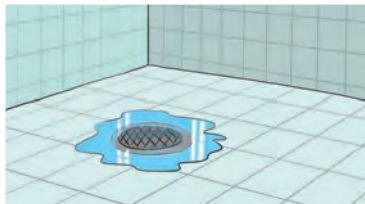
■ 호우대비 행동요령

- ▶ 산간계곡의 야영객은 미리 대피합니다.
- ▶ 침구 시 피난 가능한 장소를 시·군 이나 읍·면·동사무소에 연락합니다.
- ▶ 라디오, TV, 인터넷, 스마트폰 등을 통해 기상예보를 잘 알아둡니다.



■ 호우발생시 행동요령

- ▶ 주택의 하수구와 집 주변의 배수구를 점검합니다.
- ▶ 저지대·상습 침수지역의 주민은 대피를 준비합니다.
- ▶ 침수가 예상되는 건물의 지하공간에는 주차를 하지 말고, 지하에 살고 있는 분은 대피해야 합니다.
- ▶ 산사태가 일어날 수 있는 비탈면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 농기계나 가축 등을 안전한 장소로 옮깁니다.
- ▶ 가로등과 고압전선 근처에 가까이 가지 않습니다.
- ▶ 해안도로로 운전하지 않습니다.



■ 호우발생 후 행동요령



- ▶ 파손된 상하수도나 축대·도로가 있을 때 구·군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연락합니다.



- ▶ 가스가 새어 나와 집 안에 차 있을 수 있으므로 성냥불이나 라이터불을 사용하지 말고, 창문을 열어 환기를 합니다.



- ▶ 가스·전기(누전)차단기가 내려가 있는지(off) 확인하고, **한국가스안전공사(1544-4500)**, **한국전기안전공사(1588-7500)** 또는 전문 공사업체의 전문가의 안전점검 후 사용합니다.





한파

급격한 기온의 하강을 일으키는 현상
한파주의보시 방재조치가 필요!



■ 건강관리

- ▶ 손가락, 발가락, 귓바퀴, 코끝 등 신체 말단 부위의 감각이 없거나 창백해지는 경우에는 동상을 조심해야 합니다.
- ▶ 동상에 걸렸을 때는 죄는 신발이나 옷을 벗고 따뜻한 물로 씻은 후 따뜻하게 보온을 유지한 상태로 즉시 병원으로 가야 합니다.



- ▶ 동상부위를 비비거나 갑자기 불에 찌어서는 안 됩니다.
- ▶ 겨울엔 체온 유지를 위해 10~15%의 에너지가 더 소비되므로 운동 강도를 평소의 70~80% 수준으로 낮추는 것이 좋습니다.





■ 수도관·보일러 동파 대비

- ▶ 수도계량기 보호함 내부는 헌옷으로 채우고, 외부는 테이프로 빈틈없이 막아 찬 공기가 스며들지 않도록 합니다.
- ▶ 장기간 집을 비우게 될 때는 수도꼭지를 조금 열어 물이 흐르도록 하여 동파사고를 막아야 합니다.
(보일러의 경우 온수로 물이 흐르도록 해야함.)
- ▶ 수도관이 얼었을 때는 갑자기 뜨거운 열을 가하지 말고, 헤어드라이기 등 온열기를 이용하여 녹이거나, 미지근한 물로 녹여야 합니다.



■ 자동차 안전대책

- ▶ 도로의 결빙에 대비하여 스노체인 등 예방조치를 마련하고, 시트를 높이고 앞 유리 성에를 완전히 제거하는 등 시야를 넓혀 빙판길 등 만약의 돌발 사태에 대비합니다.
- ▶ 빙판에서 멈출 때는 엔진브레이크로 속도를 완전히 줄인 후 풋 브레이크를 사용하여 멈춰야 합니다.
- ▶ 스노체인, 염화칼슘, 삽 등 자동차 월동용품들을 준비하고, 부동액, 축전지, 각종 윤활유 등 자동차 상태를 수시로 점검 하여야 합니다.





설해

눈으로 인해 일어나는 재해의 총칭
특성에 따른 차별적 설해저감대책



■ 설해 대비 행동요령

- ▶ 스노우 체인, 모래주머니, 삽 등 눈 피해 예방용 안전장비를 휴대합니다.
- ▶ 자가용 대신 도시철도, 버스 등 대중교통을 이용합니다.
- ▶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 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은 미리 점검하고 받침대를 보강하여 피해를 예방 합니다.

■ 눈이 많이 내릴 때 행동요령



- ▶ 스노우 체인을 설치하고 운행합니다.
- ▶ 제설작업에 지장을 주는 간선도로변의 주차는 하지 않습니다.
- ▶ 미끄러운 눈길을 걸을 때에는 주머니에 손을 넣지 말고 보온 장갑을 착용합니다.
- ▶ 걸어가는 중에는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 ▶ 계단을 오르내릴 때에는 난간을 잡고 다니는 것이 안전합니다.
- ▶ 내 집 앞, 내 점포 앞 도로의 눈은 내가 치우는 건전한 주민정신을 발휘합니다.
- ▶ 낡은 가옥은 안전점검을 하여 붕괴사고를 예방합니다.
- ▶ 붕괴가 우려되는 비닐하우스 등 농작물 재배시설은 미리 점검하고 받침대를 보강하여 피해를 예방 합니다.
※ 눈이 20cm 정도 쌓이면 전깃줄이 끊어지고, 소나무가지가 부러집니다.
- ▶ 작물을 재배하지 않는 빈 비닐하우스는 비닐을 걷어내어 하우스를 보호합니다.

■ 대설로 차량고립시 행동요령

- ▶ 고립·정체 시에는 될 수 있으면 차량 안에서 대기하면서 라디오 및 휴대전화, 재난 문자방송, 스마트폰 등을 통하여 교통상황과 행동요령을 파악한 후 이동합니다.
- ▶ 인근에 가옥이나 휴게소 등이 있으면 응급환자나 노인, 어린이 승객을 우선 대피시킵니다.
- ▶ 담요나 두꺼운 옷 등을 걸쳐 체온을 유지하고 가볍게 몸을 움직입니다.
- ▶ 차량히터를 작동할 때는 환기를 위하여 창문을 자주 열거나 조금 열어둡니다.
- ▶ 수시로 차량 주변의 눈을 치워 배기관(머플러)이 막히지 않도록 하고, 차량출발이 쉽도록 합니다.
- ▶ 모두 동시에 잠을 자지 말고, 동승자가 있는 경우 교대로 잠을 자도록 하여 항상 주위 상황을 살핍니다.





폭염

파란, 해일, 수해, 풍해를
물고 오는 강력한 열대저기압



■ 가정에서의 폭염 대비 행동요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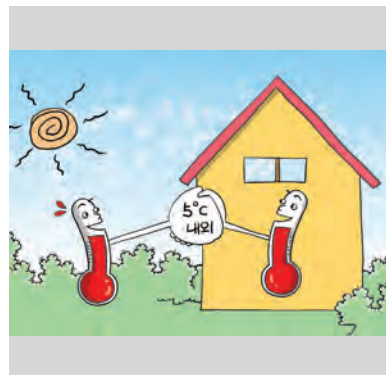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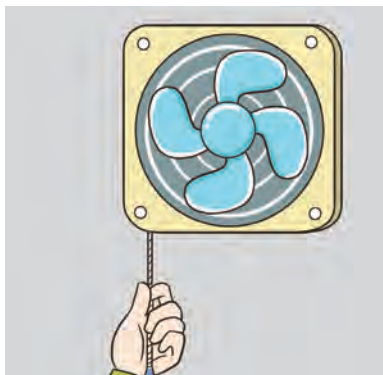
- ▶ 냉방기기 사용시는 실내·외 온도차를 **5°C**내외로 유지하여 냉방병을 예방합니다. (건강 실내 냉방온도는 26°C~28°C가 적당)
- ▶ 창문에 커튼이나 천 등을 이용, 집안으로 들어오는 직사광선을 최대한 차단합니다.
- ▶ 야외 활동을 자제합니다.
(부득이 외출을 할 경우, 챙이 넓은 모자착용 및 가벼운 옷차림을 하고 꼭 물병 휴대)
- ▶ 물을 많이 마시되 너무 달거나 카페인이 들어간 음료, 주류 등은 마시지 않습니다.
- ▶ 현기증, 메스꺼움, 두통, 근육경련 등 열사병 초기증세가 보일 경우에는 시원한 장소로 이동하여 몇분간 휴식을 취한 후 시원한 음료를 천천히 마십니다.
- ▶ 넉넉하고 가벼운 옷을 입어 자외선을 방지하고 노출부위는 썬크림 등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 피부를 보호합니다.



■ 산업 건설 현장에서의 폭염 대비 행동요령



- ▶ 휴식시간은 장시간보다는 짧게 자주 가집니다.
- ▶ 실내 작업장에서는 자연환기가 될 수 있도록 창문이나 출입문을 열어두고 밀폐지역은 피합니다.
- ▶ 건설기계의 냉각장치를 수시로 점검하여 과열을 방지합니다.
- ▶ 작업중 매 15~20분 간격으로 1컵 정도의 시원한 물을 섭취합니다.
(알코올, 카페인 있는 음료는 금물)
- ▶ 발한작용을 저해하는 밀착된 의복의 착용을 피합니다.
- ▶ 안전모 및 안전띠 등의 착용에 소홀해지기 쉬우므로 작업시에는
각별히 신경 씁니다.







생활안전 길라잡이

사회재난

산불

유도선사고

감염병 / 가축질병

안전노트



산불

건조하고 강한 바람이
환경 최악의 대형 재난을 부른다



■ 산불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 ▶ 산행 전에는 입산통제, 등산로 폐쇄 여부를 확인하고 산불 위험이 높은 통제지역에는 산행을 하지 않습니다.
- ▶ 입산 시에는 성냥, 담배 등 인화성 물질을 소지하지 않습니다.
- ▶ 취사를 하거나 모닥불을 피우는 행위는 허용된 지역에서만 실시합니다.
- ▶ 산림 또는 산림과 연접된 지역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불씨를 다루지 못하게 하고, 산불조심을 당부합니다.
- ▶ 산불원인에 대한 정보를 알고 있을 경우 즉시 경찰 혹은 산림관서 등에 신고합니다.



■ 산불 초기 행동요령

- ▶ 정확한 산불의 위치와 불의 세기를 119에 신고합니다.
 ※ **산림청, 소방서 (119), 경찰서 (112) 등에 신고**
- ▶ 초기 산불을 진화할 경우에는 솔가지나 외투를 이용합니다.



■ 산불 발생시 행동요령

- ▶ 신고를 한 후 계곡이나 바위 등 가연물이 없는 안전한 곳으로 대피합니다.
 ※ **산불은 바람의 방향과 산의 능선을 따라 번지는 특성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 ▶ 불을 진화할 때는 바람을 등져 불에 갇히지 않도록 주의하고 수시로 퇴로를 확보해야 합니다.
- ▶ 산불에 갇힌 경우에는 바람을 등지고 주변의 낙엽, 나뭇가지 등 연소 물질을 신속히 제거하고 낮은 자세로 엎드려 구조를 기다립니다.





유도선사고



■ 유도선사고 예방 금지행위

- ▶ 안전운항이나 위해방지를 위한 주의사항이나 지시에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 인명구조용 장비나 기타 유도선의 설비를 파손하여 장비나 설비의 기능을 손상시키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 위험물 선박운송 및 저장규칙 에서 규정된 화약 폭약 탄약 등 폭발물, 고압가스과 인화성 액체류 등을 선내에 반입하거나 운송하는 행위를 하지 않습니다.



■ 유도선사고 초기 행동요령

- ▶ 선박사고가 발생하면, 큰 소리로 외치거나 비상벨을 눌러 사고발생 사실을 알립니다.
- ▶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경우에는 의자 밑 또는 선실에 보관되어 있는 구명조끼를 입고 선장 또는 승무원의 지시에 따라 탈출합니다. 물로 탈출하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신발을 벗는 것이 물속에서 행동을 편하게 해줍니다.



■ 유도선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 ▶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우선 소화기를 이용하여 불을 끄고 창문 등을 깨서 환기를 시킵니다.
- ▶ 위험한 상황이 되었을 때 의자 밑 또는 선실 내에 보관된 구명조끼를 입고, 물속에서 행동이 쉽도록 가능한 한 신발을 벗습니다.
- ▶ 출입문 또는 비상구 등이 열리지 않을 때 선내에 비치된 도끼를 이용하여 창문을 깨고 탈출합니다.
- ▶ 선박에서 탈출한 후 사망하는 사람들의 사망원인 1순위는 익사가 아닌 체온저하입니다. 따라서 물속에서는 침착하게 팔을 서로 끼고 가능한 한 다리를 올려 당기고 머리는 물 밖으로 세워 최대한의 열 손실을 줄여야 합니다.
- ▶ 구명조끼를 착용하고 물속에 뛰어난 사람은 신속하게 육지 쪽으로 이동하고 안전한 장소에서 체온이 떨어지지 않도록 보온을 유지합니다.



감염병

■ 감염병 예방수칙

- ▶ 평소에도 손을 자주, 비누를 사용하여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어야 합니다.
- ▶ 식수는 반드시 끓였거나 병에 든 물(생수)을 드셔야 합니다.
- ▶ 채소류 등 식재료는 흐르는 깨끗한 물에 씻고, 충분히 가열하여 드셔야 합니다.
- ▶ 도마, 칼 등은 식품별로 구분하여 식품별로 사용하고, 사용 후 깨끗이 씻고, 잘 말려서 사용해야 합니다.
- ▶ 기침, 재채기를 할 경우 휴지나 손수건, 옷 소매 이용 입 가리기 등 기침 에티켓을 지키고 기침이 계속 된다면 마스크를 착용을 권장합니다.
- ▶ 손으로 가급적 눈, 코, 입을 만지는 것은 피하고, 집안실내 등은 청결히 하고 환기를 자주 시킵니다.



■ 감염병 발생 초기 행동요령

- ▶ 설사, 발열 및 호흡기 증상이 나타날 때에는 바로 의료기관을 방문합니다
 ※ 특히, 고위험군(5세 이하, 65세 이상, 임신부, 만성질환자 등) 경우 즉시 진료 권고
- ▶ 해외 여행객은 귀국시 발열, 호흡기 증상, 설사, 구토 등의 증상이 있을 경우 건강 상태 질문서에 성실히 기재하고 검역관에게 반드시 신고하셔야 합니다



올바른 손씻기

비누로 손씻기를 통해 각종 감염성 질환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1 단계

손바닥과 손바닥을 마주대고 문질러 줍니다.



2 단계

손바닥을 마주대고 손가락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3 단계

손등과 손바닥을 대고 문질러 줍니다.

4 단계

엄지손가락을 다른 편 손가락으로 돌려주면서 문질러 줍니다.



5 단계

손바닥을 마주 대고 손가락지를 끼고 문질러 줍니다.

6 단계

손가락을 반대편 손바닥에 놓고 문지르며 손톱 밑을 깨끗하게 합니다.





가축질병

■ 구제역·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증상

소	돼지
1. 감염 후 24시간 이내에 거품 섞인 침을 심하게 흘림 2. 혀·잇몸·발굽·유두 등에서 수포(물집)가 생김 3. 1주 이상 거의 먹지 못하며, 절룩거리며, 유방염이 발생. 젖소에서는 산유량이 50%이상 격감.	1. 감염 후 발굽의 병변과 통증으로 제대로 서거나 걷지 못함. 2. 새끼 돼지는 50% 정도 폐사하며, 때로는 어미 돼지가 죽기도 함.
닭	오리
1. 감염 후 사료섭취량 저하, 침울, 졸음 증상을 보임, 약 4~5일 후 50%의 폐사율을 보이고 이후 거의 100% 폐사 2. 벼슬·다리에 청색증 발생. 안면이 붓고, 호흡기 증상이 동반됨. 흰색 또는 녹색의 심한 설사 등 소화기 증상 발생.	1. 감염 후 사료섭취량이 줄고 호흡기 증상이 있으나, 점진적으로 회복. 2. 산란용 오리는 급격한 산란율 저하가 보통 일주일 정도 지속되다가 회복. 3. 육용 오리는 사료섭취량이 갑자기 감소, 10% 내외의 폐사율을 보임

■ 가축질병 예방 수칙

- ▶ 축사와 그 주변을 청결히 하고, 매주 1회 이상 주기적으로 소독합니다.
- ▶ 운반차량(가축·사료·약품·분뇨·기계류) 및 사람 등은 가급적 농장 출입을 자제토록 합니다.
- ▶ 농장 및 축사 출입시에는 반드시 차량 소독을 실시하고, 사람은 반드시 신발을 농장용으로 갈아 신거나 소독한 후 출입하도록 합니다.
- ▶ 구제역, 고병원성 AI 발생국에 대한 해외여행을 삼가시고, 부득이 여행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귀국 시 공항에 상주하는 검역기관에 신고하여 소독조치를 받으시고, 입국 후 5일 이내 축산시설 출입을 자제합니다.

■ 발병이 의심될 때 행동요령

- ▶ 만일, 구제역 및 고병원성 A에 감염된 것으로 의심되는 임상증상이 나타나면 즉시 각 시·도(시·군·구 가축방역기관 : 1588-4060) 또는 농림축산검역본부 (1588-9060)에 신고하세요.
- ▶ 갑자기 가축 폐사가 일어나거나 늘어나는 경우, 가까운 가축방역기관 또는 시·군·구(읍·면·동)에 즉시 신고. 죽은 가축은 가축방역관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이동시키지 마세요.
- ▶ 가축방역관(시·도, 시·군·구, 가축방역기관) 또는 가축방역사 (가축위생방역지원본부)의 방역조치 노력에 협조합니다.
- ▶ 정밀검사 결과가 최종 “음성” 으로 판정될 때까지 사람(축주·관리자·가족), 가축·분뇨·장비·물품 등에 대한 이동제한 및 차단방역 조치에 협조합니다.

■ 발병이 확인된 때 행동요령

- ▶ 발생농장에 대한 방역조치, 발생농장을 중심으로 하는 방역조치, 차단방역조치, 역학조사 등에 적극 협조합니다.
- ▶ 가축질병 전파·확산 방지를 위해 사람이 많이 모이는 행사, 모임, 집회 등에 참가하지 않도록 합니다.
- ▶ 시도(시군구) 지역 내 축산농장 등 모든 축산관련시설에 가축·사람·차량의 출입을 일시금지하는 ‘전국일시이동중지(Standstill)’ 를 시행하는 경우에는 모두 적극 협조합니다.
- ▶ 방역지역(경계지역 내) 등에 대한 가축의 이상여부 확인을 위한 예찰전화 및 문의에 협조합니다.





생활안전 길라잡이

안전관리

어린이 놀이안전 / 승강기 / 가스사고

여름철 물놀이 사고 / 도로교통사고

자살예방 / 지반침하(함몰) / 심폐소생술

안전노트



어린이 놀이안전

■ 어린이 놀이사고 원인

- ▶ 어린이는 위험한 상황을 인식하고 대처할 수 있는 민첩성과 조정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사고를 당하기 쉽습니다. 놀이기구를 타다가 떨어지거나 고정된 물체와 충돌하기도 하며 특히 보호장구를 착용하지 않아 크게 다치는 경우가 많습니다. 놀이터에서 차도로 나가 차에 부딪치기도 하며 많은 어린이들이 한꺼번에 기구를 사용하다가 사고가 나기도 합니다. 이 외에도 장난감 총알을 맞아 출혈하거나 귀나 코에 들어가 빠지지 않는 경우, 입에 들어가 질식 위험에 처한 경우도 있습니다. 장난감에 칠해진 페인트에서 납 성분이 검출되기도 합니다. 줄이 달린 장난감을 가지고 놀다가 목이 졸릴 수도 있으며 장난감 불꽃에 의한 화상 위험 등 놀이안전에 주의해야 합니다.

■ 어린이 놀이시설 안전수칙

▶ 오르기 기구

- 가로대를 양손으로 잡고 올라갑니다.
- 다른 사람이 내려오는 방향으로 올라가지 않습니다.
- 위에 있는 사람의 발을 잡거나 흔들지 않습니다.
- 내려올 때는 아래를 잘 살핍니다.
- 젖어 있는 기구에서는 놀지 않습니다.



▶ 그네

- 완전히 정지한 후에 타고 내립니다.
- 줄을 양손으로 잡고 타며 그네가 움직이는 도중에 뛰어 내리지 않습니다.

- 한가운데에 앉아서 탑니다.
- 배를 깔고 엎드려서 타거나 서서 타지 않습니다.
- 사슬을 꼬지 않습니다.
- 다른 사람이 타고 있을 때 앞뒤로 지나가지 않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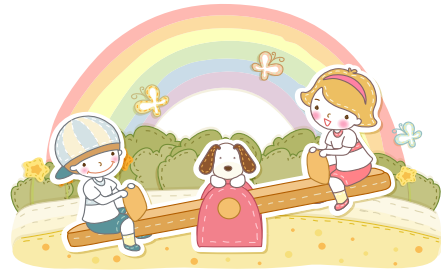


▶ 미끄럼틀

- 미끄럼 판으로 올라가지 않고 반드시 계단을 이용합니다.
- 앞사람이 올라간 다음 올라갑니다.
- 손잡이를 꼭 잡고 한 계단씩 올라갑니다.
- 다른 사람을 밀거나 당기지 않습니다.
- 한 사람씩 앉아서 내려옵니다.
- 엎드려 타거나 서서 타지 않습니다.
- 내려온 뒤에는 다음 사람이 내려오다 부딪치지 않도록 빨리 비켜줍니다.

▶ 시소

- 함께 타는 친구와 마주보고 탑니다.
- 반동으로 튕겨나갈 수 있으므로 손잡이를 꼭 잡고 탑니다.
- 시소를 탄 채 자리에서 일어나거나 뛰지 않습니다.
- 내릴 때는 같이 타는 친구에게 미리 말하고 조심하여 내립니다.
- 시소 밑에 발을 둔 채로 내리지 않습니다.



▶ 철봉

- 자신의 키보다 너무 높은 철봉에 매달리지 않습니다.
- 거꾸로 매달리지 않습니다.
- 내려올 때는 발에 충격이 올 수 있으므로 주의합니다.





승강기



■ 엘리베이터 안전 이용 수칙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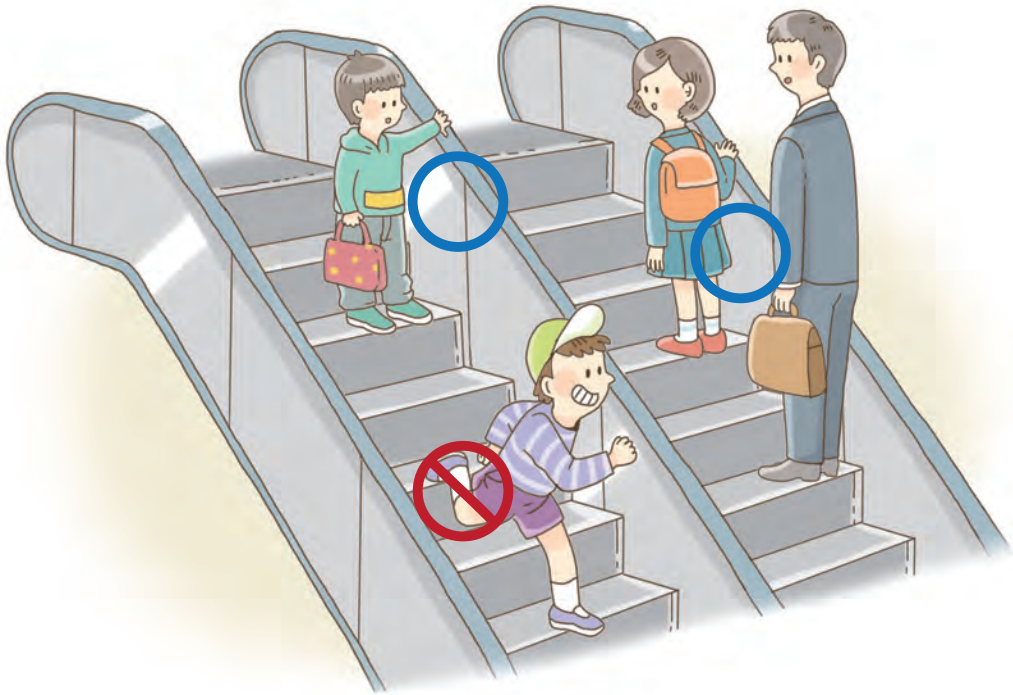
- ▶ 승강기를 타고 내릴 때는 질서를 지킵시다.
- ▶ 어린이와 노약자가 먼저 타고 내릴 수 있도록 양보합시다.
- ▶ 엘리베이터 안에서 뛰거나 출입문에 기대는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 ▶ 화재가 발생했을 때는 엘리베이터를 타지말고 비상계단을 이용합니다.
- ▶ 엘리베이터 안에 이상한 사람이 기다리고 있으면 주의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 엘리베이터 갑힘시 행동요령

- ▶ 정전 등의 이유로 실내조명이 꺼지더라도 당황하지 말고 인터폰으로 연락하여야 합니다.
- ▶ 임의로 판단하여 강제로 문을 열거나 탈출을 시도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전문가에 의해 구출되는 경우 반드시 구출자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에스컬레이터 안전 이용 수칙

- ▶ 황색 안전선 안에 발을 놓고 건너뛰지 않습니다.
- ▶ 핸드레일을 반드시 잡고 탑니다.
- ▶ 핸드레일 밖으로 몸을 내밀지 않습니다.
- ▶ 에스컬레이터를 이용하는 중에 앞사람을 추월하지 말고 질서를 지킵니다.
- ▶ 어린이나 노약자는 보호자와 함께 손을 잡고 탑니다.
- ▶ 노약자의 짐은 주변에서 들어 줍니다.



■ 에스컬레이터 사고시 행동요령

- ▶ 사고가 발생한 경우, **비상정지 버튼**을 눌러 작동을 멈추게 해야 합니다.
- ▶ **119, 관리주체** 등에 신속히 알려야 합니다.



가스사고

액화석유가스 (LPG Liquefied Petroleum Ga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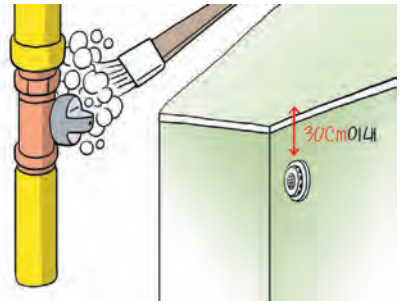
- 주로 용기에 충전하여 사용하며 수도권 이외 지역의 도시가스로도 공급되고 있다.
- 성분이 공기보다 무거워 누설되면 낮은 곳에 체류하게 된다.
- 순수한 LPG는 아무런 냄새나 색깔이 없으나 가정이나 영업소에서 사용하는 LPG는 누설을 쉽게 감지하기 위하여 마늘 썩는 냄새가 나는 부취제가 섞여 있다.

액화천연가스 (LNG Liquefied Natural Gas)

- 메탄이 주성분으로 공기보다 가벼워 누설되면 높은 곳에서 체류하게 된다.
- 액체온도가 -162°C 이하로 냉열산업에 이용하고, 기화시켜서 전국적으로 청정연료인 도시가스로 공급되며 주로 화력발전 연료로 사용된다.

■ 평소 점검 방법

- ▶ 비누나 주방용세제 등으로 거품을 내어 배관, 호스 등의 연결부분을 수시로 점검하여 가스 누출 여부를 점검하여야 합니다.
- ▶ 가스레인은 항상 깨끗이 청소하여 버너의 불구멍이 막히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 취침 · 외출 전에는 반드시 퓨즈콕 및 중간밸브가 꼭 잠겨 있는지 확인합니다.
- ▶ 아이들이 함부로 만지지 못하도록 반드시 주의를 줍니다.



■ 가스 사용하기 전

- ▶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우선 확인합니다.
- ▶ LPG는 바닥으로부터, 도시가스(LNG)는 천정으로부터 냄새를 맡아야 합니다.
- ▶ 불쾌한 냄새가 나면 가스가 새는 것입니다.
- ▶ 미리 창문을 열어줌으로써 신선한 공기로 충분히 실내를 환기시켜야 합니다.

■ 가스 사용 중

- ▶ 가스불을 켤 때에는 불이 붙었는지 꼭 확인합니다.
- ▶ 파란 불꽃이 되도록 공기 조절기를 조절합니다. 불완전연소 시 노란 불꽃이 발생하며, 이로 인한 그을음 및 일산화탄소 등의 유독가스가 발생합니다.
- ▶ 국물이 넘치거나 바람 때문에 불이 꺼지지 않았는지 옆에서 지켜보도록 하고, 가능한 한 자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 ▶ 불이 꺼지면 자동으로 가스가 차단되는 제품을 사용하고 자동차단장치가 제대로 작동하는지 자주 확인합니다.

■ 가스 사용 후

- ▶ 사용 후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밸브를 꼭 ‘**닫힘**’으로 해 주셔야 합니다.
 - ▶ 장기간 외출 시에는 용기밸브도 잠그는 것이 안전합니다. 도시가스는 메인밸브를 잠가야 합니다.
- ※ 이사를 할 때에는 반드시 가스공급자 또는 전문 시공자에게 의뢰하여 필요한 조치 취하기
 ▶ 도시가스 사용자 ⇒ 지역관리소 / LP가스 사용자 ⇒ LP가스 판매점, 가스전문 시공사



■ 가스 누설시 행동요령

- ▶ 연소기의 콕과 중간밸브, 용기밸브를 잠가야 합니다.
- ▶ LP가스의 경우에는 창문을 열어 환기를 시킨 후 바닥에 깔려 있거나 가스를 비나 방석 등으로 쓸어 내듯이 밖으로 내보내야 합니다.
- ▶ 주변의 불씨를 없애고 전기기구는 절대로 조작하지 말아야 합니다.
- ▶ 즉시 가스공급자 또는 지역관리소에 연락하여 안전조치를 받아야 합니다.



여름철 물놀이사고

■ 물놀이 10대 안전수칙

1. 여행을 떠나기 전 응급처치 요령을 충분히 익힙니다.
2. 수영을 하기 전에는 손, 발 등의 경련을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준비운동을 합니다.
3. 물에 처음 들어가기 전 심장에서 먼 부분부터(다리, 팔, 얼굴, 가슴 등의 순서) 몸을 적신 후 들어갑니다.
4. 수영도중 몸에 소름이 돋고 피부가 당겨질 때 몸을 따뜻하게 감싸고 휴식을 취합니다.
※ 다리에 쥐가 나거나 근육에 경련이 일어나면 위험한 경우가 많으므로 특히 주의합니다.
5. 지역의 기상 상태나 일기예보를 확인하고 거친 파도, 강한 조류 등에 주의해야 합니다.
6. 술을 마셨거나 약물을 복용 후에는 물놀이를 삼가야 합니다.
7. 혼자 수영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8. 깊은 물에 들어가거나 보트, 수상스키, 래프팅 등 수상레저 활동시에는 구명조끼를 착용합니다.
9. 무리한 다이빙이나 깊은 물에서의 수영은 피해야 합니다.
10. 물에 빠진 사람을 발견하면 주위에 소리쳐 알리고 구조에 자신이 없으면 함부로 물속에 뛰어 들지 않습니다.



■ 어린이의 물놀이 활동 시 유의사항

- ▶ 어른들이 얕은 물이라고 방심하게 되는 그곳이 가장 위험할 수 있습니다.
- ▶ 보행기 처럼 다리를 끼우는 방식의 튜브 사용은 뒤집힐 경우 아이 스스로 빠져 나오지 못하고 머리가 물속에 잠길 수 있습니다.
- ▶ 보호자의 활동 범위내에서만 안전이 보장될 수 있으며, 어린이는 순간적으로 익사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합니다.
- ▶ 어린이와 관련된 수난사고는 어른들의 부주의 및 감독 소홀에 의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인지능력 및 신체 적응력이 떨어지는 유아 및 어린이들은 보호자가 손을 뺀어 즉각 구조가 가능한 위치에서 감독해야 합니다.
- ▶ 활동 반경이 넓어지는 만 6~9세 어린이들은 보호자의 통제권을 벗어나려는 경향을 보이므로 사전 안전교육 및 주의를 주어 통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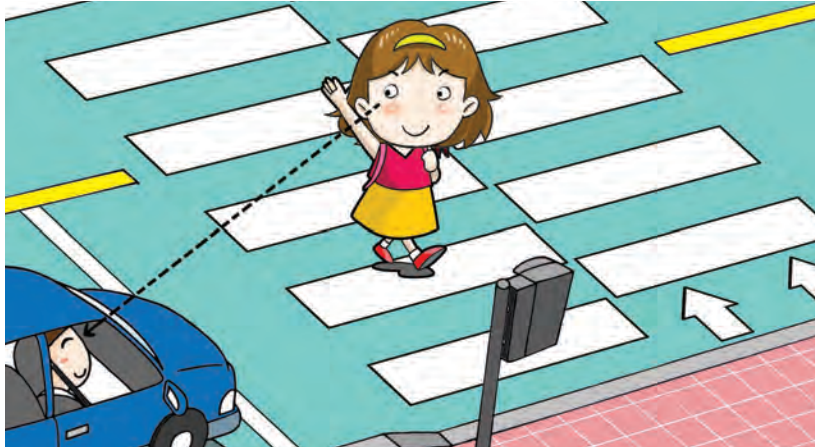


■ 물놀이사고 대처요령

- ▶ 익수사고 발생시 국번없이 119(해수면 122)로 신속히 신고합니다.
- ▶ 사람이 물에 빠졌을 때는 큰소리로 주위 사람에게 알리고 절대로 구하려고 물속에 뛰어들지 않도록 합니다.
- ▶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할 때는 로프나 튜브 또는 주위의 긴 막대기 등을 던져 잡고 나오도록 하고, 부득이 접근시에는 반드시 수영에 익숙한 자가 익수자 뒤에서 접근하여 구조하도록 합니다.
- ▶ 물에 빠진 사람을 구하였을 때에는 원인이 호흡 곤란이므로, 인공호흡이나 심폐소생술 등 응급조치를 실시하도록 합니다.



도로교통사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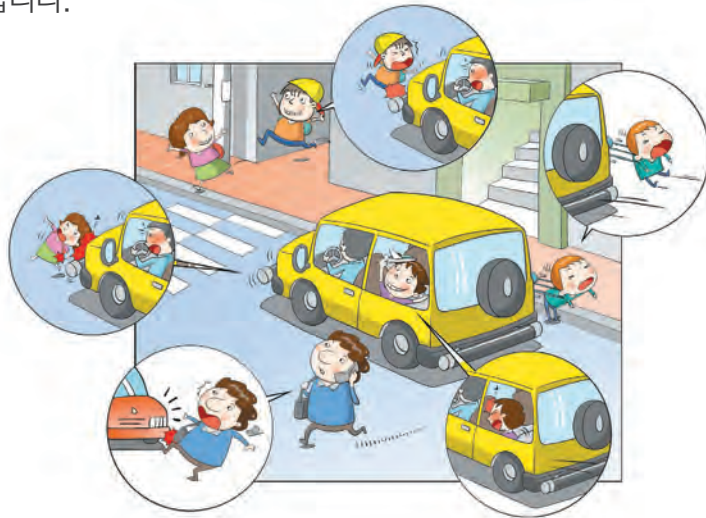


■ 도로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행동요령

- ▶ 횡단보도에서 신호가 바뀌더라도 차량의 진행유무를 확인 후 잠시 멈추었다 진행합니다.
- ▶ 처음부터 건너기 시작한 사람이 아니면, 파란 신호가 끝나지 않았더라도 건너지 않아야 합니다.
- ▶ 신호등이 없거나 점멸신호가 있는 횡단보도에서는 차량이 완전히 멈추었거나 운전자의 수신호가 있을 때 건너도록 합니다.
- ▶ 운전자는 사람이 내리는 차량 옆으로 지나가거나 추월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 ▶ 차에서 내리는 사람은 지나가는 자전거, 오토바이, 차량에 주의해야 합니다.
- ▶ 인도와 차도가 구분이 안 된 도로의 경우에는 길 가장자리 즉 한쪽으로 다니도록 합니다.
- ▶ 비가 오는 날에 우산을 숙여 쓰면 앞을 살필 수 없으니 똑바로 쓰고 차도에서 떨어진 길의 가장자리로 걷도록 합니다.
- ▶ 운전자의 눈에 잘 띄도록 밝은 색 옷을 입어야 합니다.

■ 교통사고 발생시 행동요령

- ▶ 위험물질 수송차량 사고 시 사고지점에서 빠져나와 대피합니다.
- ▶ 화재가 발생하였을 때 외에는 부상자를 건드리지 않습니다.
- ▶ 구조대의 활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구조에 참여하지 말고 사고 현장에서 물러나야 합니다.
- ▶ 사고현장에서는 유류나 가스가 누출되어 화재가 발생할 위험성이 있으니 담배를 피우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발생(목격)시 파악해야 할 사항

1. **관련된 차량의 수와 종류, 손상정도** : 작업을 부여 받은 대원과 장비들이 현장 상황을 이루는데 있어 필요한 것이나 할 수 있는 작업범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2. **부상자의 수와 부상정도** : 응급구조사, 의사에게 필요한 조치의 정보를 제공해 줍니다.
3. **추가 위험요소 및 후속조치 파악**
 - 현장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신속하게 부상자들의 목숨을 위협하는 다른 위험 요소가 없는지를 살피고 현재 발생할 수 있는 추가 위험요소를 확인합니다.
 - 때론, 응급 의료조치가 가장 중요한 조치일 수도 있으며 이때에는 주저 없이 조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부상이 경미할 경우 현장 보존이 최우선일 수도 있습니다.



자살예방

■ 자살위기자의 특징 및 징후

- ▶ 과거에 자살을 시도했던 경험이 있음. (최근 1년 이내 위험)
- ▶ 공격적이고 난폭한 행동을 보임.
- ▶ 초조해하고 불안정한 행동을 보이다 갑자기 차분해지는 예측하기 어려운 감정과 행동을 나타냄.
- ▶ 주변에 칼, 끈, 농약, 다량의 수면제, 오래된 알약 등 자살도구를 가지고 있음.
- ▶ 평소에 아끼던 물건, 기념이 될 만한 물건을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 줌.
- ▶ 평소와는 다른 행동을 보여서 '왜 저러지' 라는 생각이 들게 함.
- ▶ 잠을 못 자거나 잠을 자더라도 악몽을 꾸는 등 수면문제가 있고 불안감, 우울감을 호소함.
- ▶ 최근에 가족이나 친한 사람이 사망한 경험이 있음.
- ▶ 자신의 무가치함을 강조하고 위축됨.
- ▶ 술에 취한 상태이거나 최근 음주량 및 횟수가 급격히 증가함.
- ▶ 암, 만성통증성질환, AIDS, 초기치매 등 난치성질환을 앓고 있으며 이에 대한 절망감을 호소함.
- ▶ 평소에도 자주 '자살을 하겠다.' 는 말을 언급함.
- ▶ 죽음으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고 얘기함.
- ▶ 자살하는 사람의 심정을 이해하겠다는 말을 자주함.





■ 자살위기자 대응법

- ▶ 주변에 자살도구가 있다면 치워주세요.
- ▶ 자살생각 및 계획에 대해 구체적으로 묻고 대화를 시도해보세요.
- ▶ 자살을 하려는 사람의 감정을 동정하지 말고 공감해주세요.
- ▶ 결정적인 대처 방법을 제시하지 말고 논쟁을 하지 않습니다.
- ▶ 비밀보장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 ▶ 전문기관의 연락처를 알려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해주세요.



정신건강, 위기상담전화 1577-0199(전국공통)
보건복지부 희망의 전화 129(전국공통)



지반침하(함몰)



■ 침하·함몰·공동·싱크홀이란?

▶ 침하(沈下, settlement)

- 넓은 면적이나 일정 구간에서 자연적인 연약지반 또는 충분히 다짐되지 않고 인위적으로 형성된 지반이 서서히 가라앉는 현상

▶ 함몰(陷沒, sinking)

- 지표면이 여러 요인에 의하여 일시에 붕괴되어 국부적으로 수직방향으로 꺼져 내려앉는 것

▶ 싱크홀(sinkhole)

- 석회암, 석고, 암염 등의 지층이 지하수와 지표수의 화학적인 영향에 의하여 유실되어 지표층까지 갈때기 또는 원통 모양으로 붕괴되는 현상

▶ 공동(空洞, cavity)

- 지층 내에 생긴 빈 공간으로 여러 요인에 의해 다양하게 나타나며, 지표면까지 확대될 경우 함몰 또는 싱크홀이 발생

▶ 포트홀(pot hole)

- 도로포장체에 빗물 유입 등으로 인하여 표면이 벗겨져 작은 구멍이 생기 현상

■ 지반침하(함몰)는 왜 일어날까요?

- ▶ 우리나라에서 자연적 요인에 의한 싱크홀은 영월, 정선 등 석회암 지대에서 제한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최근 도심지에서 발생하고 있는 지반침하(함몰)는 주로 아래와 같은 원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지하 터널 굴착공사 부실

- 지하수위가 높은 토사 지반에서 터널 등을 굴착할 때, 굴착면 상부의 지반이 붕괴되거나, 토사가 유실되어 터널 위쪽에 공동이 생기면서 발생

2. 상하수관 등 지하매설물 손상

- 관로 노후화 또는 지반침하등의 외부 요인으로 연결부등이 파손되어 누수가 발생되고, 주변토사가 물과 함께 유실되어 공동이 생기면서 발생

3. 지하 흙막이벽 누수 및 토사 유실

- 건물이나 구조물 등의 공사를 위해 지하수위가 높은 토사지반을 굴착할 때 지하 흙막이 벽체를 따라 지하수 및 토사가 유실되어 공동이 생기면서 발생

■ 발생 징후는 무엇일까요?

- ▶ 공사현장(굴착공사 등) 주변도로 등에 균열 또는 높낮이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
- ▶ 건물 주변 등의 지반이 가라앉으면서 건물과 지표면 사이에 틈새가 벌어지는 현상
- ▶ 도로나 보도블럭이 울퉁불퉁해지거나 도로 표면에 작은 구멍 또는 움푹 들어간 곳이 생기는 현상
- ▶ 최근 지하매설물(상하수관 등) 공사를 한 구간이 가라앉는 등 표면에 높낮이 차이가 발생하는 현상
- ▶ 도로에서 갑자기 물이 솟아나거나 도로 일부가 젖어있는 현상
- ▶ 건물의 기초 벽체, 창문 또는 방문 모서리 부분에 균열이 발생하는 현상





지반침하(함몰)

정부의 예방 대책은?

- ▶ 지반침하(함몰) 발생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 우리나라에서 발생하는 원인은 대부분 인공적인 요인으로 체계적인 대책을 세워 충분히 예방하고 극복 할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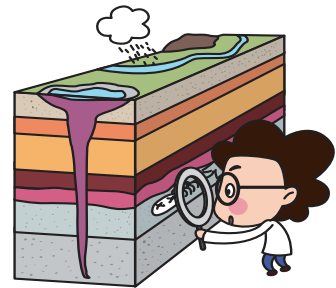
▶ 지하공사의 안전관리를 총괄하는 “특별법” 제정

- ① 지하개발 인허가부터 준공 이후까지 철저한 안전관리
- ② 지상까지 고려한 안전기준 마련 및 정부의 지도감독 강화
- ③ 지반 안전확보를 위한 기술개발추진



▶ 생생한 땅속 정보를 제공 지반안전 강화

- ① 3D 지하공간 통합지도 구축 및 관리
- ② 누구나 지하공간 정보를 쉽게 활용할수 있는 지원체계 마련



▶ 불안요소에 대한 선제적 모니터링 및 관리

- ① 국민의 불안요소에 대해서 정부가 집중관리
- ② 지하수 모니터링과 노후 지하시설 보수보강을 통한 사고예방



■ 사고 발생시 어떻게 신고할까요?

지반침하(함몰) 사고 또는 징후 발견시
지역번호 + 120번 또는
112, 119로
즉시 **신고** 해주세요!!





심폐소생술

■ 성인 심폐소생술



▷ 의식확인



▷ 호흡확인



▷ 인공호흡



▷ 가슴압박과 인공호흡반복

1. 심정지 확인 및 119신고 (자동제세동기 요청)

- 환자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괜찮으세요?” 라고 여쭙보세요.
- 주변 사람에게 큰소리로 119에 전화해 달라고 부탁하고, 자동제세동기 (AED) 요청, 주변에 사람이 없으면 직접 119나 1339에 신고합니다.

2. 압박위치

- 손꿈치 중앙을 양쪽 젖꼭지 사이 흉부의 정중앙에 놓고, 손가락이 갈비뼈에 닿지 않도록 합니다.
- 다른 손으로 나머지 손을 덮어주세요.

3. 압박방법

- 팔을 쭉 펴고 수직으로 분당 최소 100회 속도 및 최소 5cm 깊이로 환자 가슴을 눌러 준 다음 힘을 뺍니다.

4. 가슴압박 30회 시행

- 분당 최소 100회의 속도로 30회 흉부를 압박합니다.
- 흉부압박 때 환자 가슴에서 양손을 떼지 않습니다.
- ※ '하나, 둘, 셋', '—', '서른' 하고 세어가면서 시행하며, 압박된 가슴은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5. 기도유지

- 머리를 뒤로 젖히고 턱을 위로 들어 올려 기도를 열어 주세요.

6. 인공호흡 2회 시행

- 환자의 코를 막고 입속으로 두 번 불어주세요.
- 이때, 환자 가슴이 올라와야 폐로 공기가 들어 간 것입니다.
- ※ 구조자가 인공호흡을 모르거나 능숙하지 않은 경우에는 인공호흡을 제외하고, 지속적으로 가슴압박만을 시행합니다. (가슴압박 소생술)

7. 가슴압박과 인공호흡의 반복

- 30회의 가슴압박과 2회의 인공호흡을 119구급대원이 도착 할 때까지 반복해서 시행하세요.
- 구조자가 두 사람인 경우에는 30:2로 1인은 흉부압박을 하고 다른 1인은 인공호흡을 합니다. 5주기마다(매 2분마다) 교대하여 실시합니다.

8. 압박시간 중단 최소화

- 흉부압박 시 중단 시간이 10초 미만인 되도록 합니다.

■ 영유아 심폐소생술



▷ 자극 반응 확인



▷ 기도유지 및 호흡확인



▷ 흉부압박



▷ 기도유지

1. 확인

- 아이에게 자극을 주어 반응이 있는지 확인한다.

2. 기도유지 및 호흡 확인

- 단단하고 평평한 바닥에 반듯하게 눕힌다.
- 기도가 열린상태로 유지하면서 아이의 입과 코 부위에 자신의 귀를 대고 10초 이내에 호흡을 확인한다.
- 눈으로 가슴의 움직임을 보고, 귀로 호흡음을 듣고, 뺨으로 입김을 느낀다.

3. 흉부압박

- 양쪽 젖꼭지를 이은 선 바로 아래 지점에 손가락 두세개를 놓는다.
- 압박하는 위치는 절대 이동하지 않는다.
- 흉곽의 1/3 또는 1/2 깊이로 들어가도록 압박과 이완(눌렀다 떴다)을 반복한다.
- 힘차고 빠르게 1분에 100회 속도로 압박한다.
- 주의! 압박사이의 중단하는 시간을 최소화한다.

- 약 2분동안 흉부압박 30:5번 반복 후 119에 구조를 요청한다.
- 환아가 회복되거나 구급대원이 도착할때까지 계속 실시한다.

4. 기도유지

- 한손의 이마, 다른 한 손은 턱을 들어 주되 중립위치를 유지하도록 합시다.
- ※주의사항 : 영유아의 경우 너무 과도한 신전은 기도를 오히려 막을 수 있으니 주의하도록 함.



자동제세동기 사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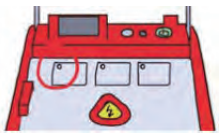
▷ 자동제세동기 도착 즉시 사용



▷ 전원켜기



▷ 두개의 패드 부착



▷ 심장리듬 분석



▷ 제세동 실시



▷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 후
반복 시행

■ 자동제세동기를 이용한 심폐소생술

1. 자동제세동기 도착

- 심폐소생술 시행 중에 자동제세동기가 도착하면 지체 없이 이용합니다.

2. 전원켜기

- 자동제세동기를 심폐소생술에 방해가 되지 않는 위치에 놓은 뒤 전원버튼을 누르세요.

3. 두개의 패드 부착

- 패드 1 : 오른쪽 빗장뼈 바로 아래
- 패드 2 : 왼쪽 젖꼭지 옆 겨드랑이
- 패드와 제세동기 본체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에는 연결하세요.

4. 심장리듬 분석

- “분석 중...” 이라는 음성 지시가 나오면, 심폐소생술을 멈추고 환자에게 손을 떼세요.
-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 “제세동이 필요합니다” 라는 음성지시와 함께 자동제세동기 스스로 설정된 에너지로 충전을 시작합니다.
- 제세동이 필요없는 경우 “제세동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라는 음성지시가 나오며 즉시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여야 합니다.

5. 제세동 실시

- 제세동이 필요한 경우에만 제세동 버튼이 깜박이기 시작하며, 깜박일 때 제세동 버튼을 눌러 제세동을 시행하세요.
- ※제세동 버튼을 누르기 전에는 반드시 다른 사람이 환자에게서 떨어져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합니다.

6. 즉시 심폐소생술 다시 시행

- 제세동을 실시한 뒤 즉시 가슴압박과 심폐소생술을 다시 시작하세요.

7.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 후 반복 시행

- 회복되었거나 119구급대가 도착할 때까지 2분마다 심장리듬 분석 및 반복 시행



■ 각종 사고 및 긴급상황 발생시 유형별 전화번호 안내

재난 | **119** [국민안전처]
긴급재난, 화재 발생시, 구급·구조 필요시

122 [국민안전처]
해양에서 사건 및 사고발생시

042-481-4119 [산림청]
산불 발생시

1544-4500 [한국가스안전공사]
가스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1588-7500 [한국전기안전공사]
전기로 인한 안전사고 발생시

치안 | **112** [경찰청]
범죄피해로 인한 위급상황 발생시

생활속
위해요소
신고 및
각종사고
발생시
신고
사이트

안전신문고 <https://www.safepeople.go.kr>
생활 속의 안전을 위협하는 요소를 언제,
어디서든지 신고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119 안전신고센터 <http://www.119.go.kr>
인터넷을 통하여 누구라도 클릭한번만으로 각종 재해에 대한
대비와 신속한 처리까지 해결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유비쿼터스 안심콜 <http://u119.nema.go.kr>
사전에 등록된 개인의 정보를 통하여 본인 또는 대리인이 전
화로 신고할 경우 미리 등록된 정보를 바탕으로 신속하고 적
절한 응급처치를 하기 위한 서비스입니다.



긴급연락처

■ 기타 긴급 전화 연락처

각종민원

110 [정부민원안내콜센터]

정부 통합 민원서비스

120 [시·도 민원 신고센터]

지자체 각종 민원 신고

생활안전

123 [한국전력]

정전 및 전기고장 신고

121 [상수도사업본부]

수도 고장 신고

128 [환경부]

환경오염신고

131 [기상청]

기상 정보



학교폭력 가정폭력 여성폭력 불량식품 신고센터

117 [학교, 여성폭력 피해자 긴급지원센터]

학교폭력, 따돌림 상담

1366 [여성가족부]

가정폭력, 성폭력 등의 긴급상담, 긴급 보호 요청

1399 [식품의약품안전처]

부정, 불량식품 신고

